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말씀 : 사도행전 5:17~6:7

요절 : 사도행전 5: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오순절 성령강림과 함께 시작된 복음전파의 역사는 사도행전 7장에 이르기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전파의 핵심적인 멤버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 의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 들어서면 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복음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와 안디옥, 이방세계로 번져가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핍박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두 번째 옥에 가두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사도들의 복음전파와 함께 이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교 종교지도자들 간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것일까요? 둘째, 핍박 가운데서도 전파되는 복음역사입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가운데 있었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복음증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같이 5장 17,18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17,18)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핍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살펴 본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17,18절에서도 성도들에게 오는 핍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은 먼데서 오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옵니다. 핍박은 불신자들로부터 오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

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였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하여 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했습니다. 핍박이 오는 이유가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이유와 교리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살펴보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자 이제 복음역사는 중단되었습니까?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역사를 섬기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20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19,20)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 5:19,20절 말씀은 짧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구원 역사, 복음역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자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20)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찾아와 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입을 막고자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옥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역사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16,17세기에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는 교권주의로 성도들의 신앙을 핍박하였습니다.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사례와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교도 신앙핍박은 복음의 물줄기를 유럽으로부터 신대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선교적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복음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흘러 들어 왔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부흥역사의 발원지는 평양입니다. 산정현 교회와 장대현 교회와 같은 교회들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요원의 불꽃처럼 번지고 있을 때, 6.25와 공산당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북한지역의 성도들이 대거 월남하여 남한에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에 부흥의 불씨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70 여년 동안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핏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들은 복음역사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가져다주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응답으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병에서 나음받기도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력을 체험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생명의 말씀에 다 백성에게 전파하라는 복음전파의 사명입니다. 기도응답을 받기 전에는 간절한 마음에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제가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자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양 무리를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서원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살만해지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가 하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저 자신만 위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과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은 복음전파입니다. 선교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바로 이 명령을 위해 우리가 부름 받았고, 이를 위해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복음전파의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부패하고 안일해져서 생명력과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명가운데 달려가는 사람은 옥에 갇힐 찌라도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시련, 고난과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4:7~10)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전파, 동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낙심치 않고 사명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은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날이 밝자 아침부터 옥에 가두어 둔 사도들을 불러내어 심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속들이 옥에 가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킨 사람들도 문에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것이 무슨 조화냐 하는 의혹이 일면서 당연히 사도들이 <쇼생크 탈출>을 해서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성전 말은 자와 관속들을 보내 그들을 다시 잡아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심문하였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28) 여기서 “너희 가르침”을 개역성경에서는 “너희 교(敎)”(doctrin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과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의 말은 사도들이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 이단교리인 예수교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유대교라고 하면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유대인(혹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교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유대교가 구약성경 곧 모세오경(토라)을 경전으로 삼고 있으나 구약성경을 믿는 신앙과 유대교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백성임을 의미하는데, 유대인과 유대교인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유대교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사회에서 형성된 종교적 형태를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기독교신자라고 합니다. 또, 기독교신자들은 신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

다. 그런데,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안식교와 같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고백위에 세워졌으며,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나 감리교단에 소속되었다고 모두 기독교신자라고 동일시하거나, 장로교나 감리교 교리가 신구약 성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너희 교(敎)” (doctrine)를 전한다고 심문한 것은 그들이 믿는 유대교 교리와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가 다르다는 말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처럼 교단교리에 의하여 수많은 이단정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신들이 속한 종파의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정죄와 박해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세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루터나 칼빈, 쾰링거리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교회 입장에서는 죽여 없애야 할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 반기를 든 청교도들 역시 영국에서는 이단자들로서 그들은 2세기에 걸친 박해를 견디다가 신대륙으로 이주 하였습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단교리를 전파한다고 정죄하자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다같이 29~3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29~32)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의 심문에 대한 놀라운 기독교 변증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에는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의 영적문제가 잘 드러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역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유대교법상 불법이고 이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교회법을

여기고 예수교라고 하는 이단교리를 예루살렘에 널리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의 문제 핵심을 정확히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었지만, 모세오경(토라)을 잘 지키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토라를 해석하고 적용한 일종의 유대교 교리인 미쉬나(mishina)라고 하는 유대교 구전율법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율법의 십계명에서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365가지의 안식일법을 구전율법, 즉 유대교 유전으로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는 무화가 열매 두 개의 무게이상은 들 수 없다 라든가, 두 글자 이상의 글씨를 써서는 안 된다 라든가 한 모금의 우유 이상의 분량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 등입니다. 또 이러한 안식일법을 어기는 자를 발견하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드는 행위라든가 허리를 90° 이상 굽히는 행위, 사람을 죽이는 살인 역시 안식일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로서 또 죽여야 할 죄가 됩니다. 이렇게 모세오경(토라)을 해석하여 유대교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율법이 무려 20,000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에 천지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감격을 맛보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랑할 것과 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 죄 사함, 영원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므로 지난 한 주간 잊고 살았던 내 인생의 창조목적이 무엇이며,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미쉬나(mishina)라고 하는 구전율법을 만들어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막7:6~9)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지도자들

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의 본뜻은 버리고, 종교적 전통과 형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속을 말씀하셨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고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 십자가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 주셨습니다. 또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으며, 장차 오실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가 오셔서 주실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까? 30,31절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30,31) 여기서 사도들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좇았을 때 결국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존재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과 구주란 영어로 a Prince and a Savior입니다. “**임금과 구주(a Prince and a Savior)**”라는 말씀에는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 곧 왕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인생들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생들을 통치하실 때 인생들은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실 때 인생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즉 구주로만 알고 신앙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믿고 순종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신다는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 소유주가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라는 말씀은 나의 삶이 왕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3~39절은 당시 존경받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설득함으로서 사도들의 일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33절에 보면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변론을 듣고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자 노하여 살의를 품었습니다.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에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가말리엘은 과거 드다 사건과 유다사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한 때 세를 과시했지만 결국 지도자가 사라지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두 사건을 들어서 이번 일에서도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가말리엘의 지혜와 인격이 사도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역사상 잘못된 인간의 사상과 교회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종교적 권위아래 인간의 이성이 철저히 억압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이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무너지게 되는데 그 배경이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과 공산주의의 출현과 몰락 등입니다.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 당시 가톨릭교회는 물론이며 많은 개신교 목사들조차 히틀러에게 동조하였습니다. 특히 루터는 유대인에 대한 경멸과 저주로 가득 찬 책을 썼는데 이것이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소련의 공산당혁명과 중국의 문화혁명 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의 숙청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를 전후해서 좌우익이 나뉘어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죽이고 죽는 살육의 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를 분열과 살

육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공산주의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 난지 70 년 만에 종식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허물이 많은 인간들의 모임이다보니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많았으며, 이는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30년쯤 된 교회였지만,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교회내부에 파당이 생겼고, 죄 문제가 있었으며,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완벽한 성도의 공동체를 꿈꾸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또한, 완전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는 늘 알곡신자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제거하고 교회를 이상적인 모임으로 만들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이성과 판단의 잣대를 들이댈 때 자칫 무고한 성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마13:29,30)

다같이 40~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40~42)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첫째,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작은 고난이 닥치면 고난 자체는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

래 그래도 주님 섬기는 작은 종이라고 이처럼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게 하시다니 감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가장 높은 단계로서 주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핍박당하고, 거짓과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교할 뿐 아니라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서 제자양성을 하였습니다. 일대일 성경공부 팀이 많아지다 보니 날마다 쉬지 않고 성경공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대일 제자양성이 왕성해지자 6장 1절에 보면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되었지만, 일대일 제자양성 곧 성경공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는 있으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일대일 제자양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설교자가 될 수는 없으나 일대일 성경선생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내의 문제가 처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에도 성도들 간의 갈등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정통 히브리파 성도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영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에 주축을 이루는 세력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교회내에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파벌이 형성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3,4절을 보면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7)** 교회내의 갈등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전파는 박해와 시련을 동반합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전파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봄 학기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서 우리가운데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